

출토복식을 통해본 17세기 봉제구성

-임경백 · 임계백 묘 중심-

장 인 우

인천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Sewing Construction of the 17th Century-Clothing Through the Excavated Costume

-Based on Tombs in O'chang -

In-Woo J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Incho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2000. 10. 9 루고)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sewing construction of the 17th century clothing through the Excavated Costumes in O-chang, ChungBuk in 1998.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are various sewing constructions in this excavated costume : a running stitch · a back stitch · a half back stitch · a french seam · a gobsol(korean traditional seam sewing). We can see that the sewing construction of the 17th century-clothing depends on construction styles : one layer, two layers, clothing padded with cotton(include quilt). We can see that sewing construction in the one layer clothing consisted of a running stitch, a french seam, a gobsol seam. in the two layer clothing the construction included a running stitch and half back stitch. a running stitch and a decorated top stitch(3stitch) were used in the clothing padded with cotton. We can see that the sewing construction enhanced the function of keeping the shape of clothing and the raw edges. We can see that the shape of clothing is important in presentation of aesthetic of the clothing. Such a kind of sewing construction lasted from the early Chosun Dynasty through the 17th century.

Key Words : Sewing Construction, Excavated Costume, 17th Century-Clothing, stich, layer, seam.

I. 서 론

과거 복식연구에 있어서 실물자료의 중요성은 아

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복식 연구에 있어서 의복구성은 반드시 실물을 통하여 그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

복식의 의복구성 연구는 실제 20세기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 대부분은 당시 의복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졌다¹⁾. 따라서 근세 이전의 의복구성은 출토복식이 발굴된 이후 조사보고서가 그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대가 가장 오래된 실물자료 가운데 하나인 출토복식에 나타난 의복구성은 4-5백년전의 의복구성이다. 따라서 출토복식에 나타난 의복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고유의 복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출토복식은 발굴후 보존처리와 조사에 시간을 요함에 따라 출토복식이 갖고 있는 정보의 자료화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본 출토의복의 의복구성을 통하여 특정시기의 의복구성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출토복식의 초기연구는 발굴과 함께 조사보고서로 문화재관리국 혹은 발굴박물관에서 김동욱·고복남·유송욱·유희경·박경자에 의하여, 최근조사는 김미자·박성실·고부자·김명숙·장인우·이은주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각 출토지 중심으로 시대추정 및 복식사적 의의 등 단편적인 조사였으나 최근에는 조선초기·조선중기의 출토복식이 시기별로 다루어졌으며²⁾, 특히 봉제구성에 관해서는 박성실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본 논문은 1998년 충북 오창 과학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10여점의 의복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출토의복은 임란이후 17세기초기의 임경백·임계백 두 형제의 무덤이었으나 부부합장묘로 남녀4인의 것이었다.

본 출토복식에서의 특징은 과거 유물가운데 비교적 수량이 적은 도포가 출토된 점이며, 그 봉제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조사복식에서는 홀으로 혹은 두겹으로 구성된 의복에서 곡선형태에 의한 푸서의 풀림방지를 위한 봉제법 혹은 두겹으로 구성된 의복에서 안감과 겹감을 고정하기 위한 봉제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출토의복의 출토배경과 추정연대를 통하여 동시기 유물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출토의복의 종류와 각 의복의 구성을 통하여 당시 의복의 구성요소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복의 구성유형에 따른 봉제법을

통하여 17세기 봉제구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조사의복의 명칭은 전례(前例)에 따라 의복의 색상·재질·구성유형·의복종류의 순으로 명명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의복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복 각 부위의 치수를 실측하였다. 이를 통하여 의복의 도식화작업을 하였다. 아울러 이때 봉제구성을 함께 조사하였다.

II. 출토배경와 분포

임계백·임경백묘 출토복식은 1998년 오창 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내의 개발과정 중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건지산 산64번지 및 산 62번지에서 분묘 이장 중 출토된 복식 일괄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기증 받은 것이다. 본 출토경우는 조사이전 1998년 7월 18일 이미 전문가의 참여없이 이장이 완료된 상태로 발굴과정에서 귀중한 자료들이 파손됨은 물론 그 일부 의복만이 수거되었다.

본 출토복식의 피장자를 풍천 임씨의 족보³⁾에서 살펴보면 무덤의 주인인 임경백과 임계백은 풍천임씨 별좌공파(別坐公派)로 후손 임충순씨의 11대 선조이었다. 임경백은 자는 회의(會而)이며 선조 갑오년(1594)에 출생하였으며 생존시 교랑(教郎)을 지냈으며 효종(孝宗) 병오년(1657)에 죽었고, 합장된 부인 밀양손씨는 1592년에 태어나 1660년까지 살았다. 동생 임계백은 자는 효이(孝而)이며 1598년에 출생하여 1639년에 죽었으며, 합장된 부인은 양천 허씨이다. 현재 본 출토복식의 피장자 생존시기는 임란직후 17세기초기이며, 시기가 유사한 출토복식은 [표-1]과 같다. 즉 예안이씨⁴⁾·진주하씨⁵⁾·전박장군묘·구례손씨⁶⁾·전주이씨⁷⁾의 유의 등이 있으며, 이외 홍우협⁸⁾과 홍진중⁹⁾이 그 이후 17세기 후기로 연결된다.

III. 출토의복의 성격과 구성

본 출토유의는 두 출토지 4인의 의복이 발굴되었으나 그 일부만 수거되었다. 비록 그 수량은 적으나 다양한 유형의 봉제구성을 볼 수 있으니, 과거 실물

[표-1] 출토복식의 출토지 및 주인공 생졸연대

출토지	생졸연대	1600		1700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양천허씨 (1630후반-1660초반 추정)					
예안이씨 (1583-1655)		←	→		
홍우협 (1655-1691)				←	→
홍진중 (1649-1702)				←	→
김덕원 (1634-1704)				←	→
진주하씨 (임란직후)		—	—		
전주이씨 (임란직후)		—	—		
청원 전박장군 (- - 1592 - - -)		—	—		
구례손씨 (1576-1626)		←	→		
임경백 (1594-1694)		←	→		
임계백 (1598-1639)		←	→		

←----- : 출생·사망연도 ----- : 출생·사망연도 추정 * : 사망연도

로서 당시의 의복구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옷을 만드는 일인 구성(構成)은 그 과정에서 의복의 형태와 봉제방법 그리고 구성요소로써 각 과정을 조합·배열·조립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의복구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문화로서 그 발전단계로 종적인 시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입체구성 혹은 평면구성의 방식에 따라 횡적인 지역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국의복의 구성요소는 길(胛)·소매(袖)·깃(領)·회장(回裝)·옷고름·동정(同正)·끝동(袖端)·설피(袷)·진동·뒤중심선 등이 상의류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러한 각 구성요소는 시대에 따라 그 형태와 크기에 의해서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의복형태에 따른 시대추정이 가능하게 된다¹⁰⁾. 의복의 각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바느질 방법에는 흠질(運針)·박음질(返し縫)·반박음질(半返し縫)·감치기(纏ひ縫)·공그르기(本紵)·상침(返飾)·시침(駢方)·사뜨기(飾し纏)·휘감치기(かいり縫)¹¹⁾·감침질·새발뜨기¹²⁾(상아침¹³⁾, 옷감을 연결하는 솔기처리방법에는 홀솔·통솔·가름솔·곱솔·쌈솔¹⁴⁾·싸박기¹⁵⁾·쥐음솔·외주름솔¹⁶⁾ 등이 있다. 또한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에 따라 의복의 구성유형은 홀으로 구성된 의복·두겹으로 구성된 의복·솜으로 구성된 의복·누비로 구성된 의복으로 다양하다. 또 이에 따른 봉제구성은 홀으

로 구성된 의복의 시접을 곱솔로 박아 모두 잘라내는 깨끼바느질과 일정크기의 시접을 그대로 접어서 바느질하는 물겹바느질이 있다. 또한 홀으로 구성된 의복의 경우 도련부위를 선단과 아랫단의 안단 처리와 이를 의복의 시접을 접어 처리하는 제물단과 다른 옷감을 대는 덧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 트임의 유·무(有無)와 크기 그리고 솔기와 올의 방향이 의복구성에 있어서 중시된다.

1. 의복의 종류

수습된 의복은 형인 임경백(1594-1694) 묘에서 저고리(1)·단속곳(1)·치마(1)·장의(1)·바지(1)의 5점과 직물1점이 출토되었으며, 동생인 임계(1598-1639) 묘에서 도포(1)·창의(1)·저고리(4)·바지(3)·버선(1)·이불(1)과 많은 직물파편이 수거되었다. 대부분의 파편은 포류의 부분으로, 대개의 출토유이의 경우와 같이 포의 앞·뒤 중심부분이 찢겨져 분리된 상태이었다.(이는 이장시 시신(髒)을 감싸고 있던 염의(殮衣)를 시신에서 분리시키면서 발생된 파손으로 추정한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출토지별 특징보다는 각 의복을 포류·저고리류·하의류로 분류하여 종류별로 그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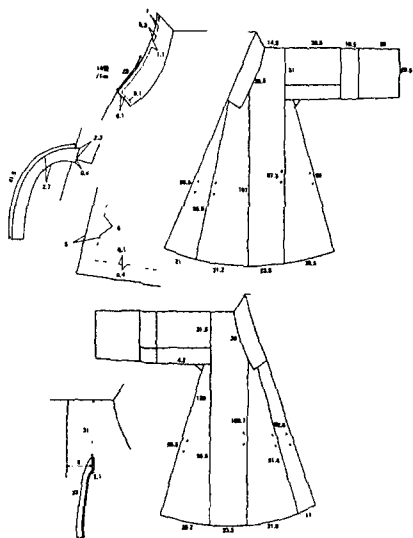
(1) 포 류

출토포류에는 장의·도포·창의의 세종류가 있다.

① 백색무명솜장의(I-1)

백색무명솜장의는 임계백묘에서 출토되었다. 상태는 거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만 일부분이 파손되어 보수처리가 요구된다. 출토장의는 구성유형이 솜으로 구성된 것·솜누비로 구성된 것·2겹으로 구성된 의복·홀으로 구성되었으며¹⁷⁾, 이번 오창출토 장의 역시 솜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두께는 약 1.37mm이었다. 대부분의 출토장의는 유색인 반면 본장의는 진주하씨 출토장의와 함께 무색¹⁸⁾이었다. 그러나 진주하씨 장의의 경우는 홀으로 구성된 점이 차이점이다.

본 출토장의의 구성을 살펴보면 깃은 2겹으로 구성되었으며, 2장으로 구성된 목판깃이다. 이 가운데 안깃이 파손 소실된 상태이다. 소매는 직선소매이며 여러 조각으로 연결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각구성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혹은 재료여유에 의하여 구성된 것인지를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섯은 겹섯과 안섯 모두 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겹섯의 올방향은 중심과 일치하며, 안섯의 올방향은 섯선과 일치한다. 고름은 1겹이며, 1장구성이며, 크기는 긴고름은 나비2.7cm×길이41.5cm이고, 짧은 고름은 나비2.1cm×길이33cm이며, 고



[그림-1] 백색무명솜장의 (I-1)

름은 1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옷에 연결된 부위는 2겹으로 접어 구성하였고 이때 굵이 위로 향하게 구성되었다. 봉제는 앞중심좌우여밈과 밑도련의 완성선 안쪽 5cm위치에 1.2cm크기의 3땀상침이 5.5cm간격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길기의 깃머리부분은 완성선1mm안쪽에 7-8땀/1cm 크기의 박음질로 처리되었다. 여기서 걸감에만 상침처리된 것은 당시 걸감과 안감을 따로 구성한 것을 반영한다. 또 이는 걸감의 시접을 고정시키는 기능도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예는 순천 김씨 갈색무명솜저고리와 진주하씨 장의(II)에서도 볼 수 있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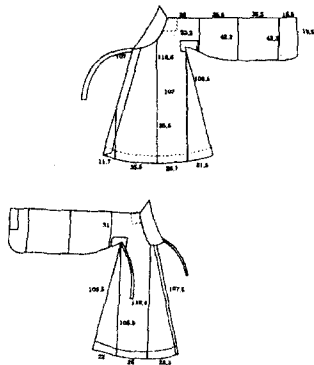
[사진-1] 백색무명솜장의(I-1)

② 백색무명홀도포(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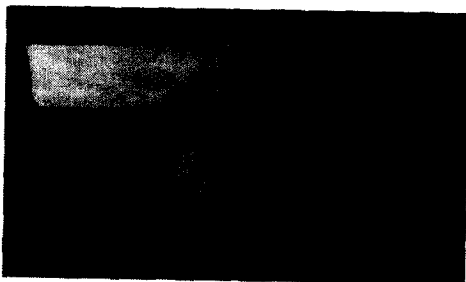
도포는 임계백묘에서 출토되었다. 조선중기는 도포가 형성되는 시기²⁰⁾로 추정하고 있다. 출토도포는 전체 봉제가 정교한 반면 오른손 소매의 끝동과 2번째 폭은 매우 거칠고 조약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봉제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은 반박음질 내지 박음질로 구성된 반면 이부분은 홀질로 처리되었다. 이는 이 도포가 착용하였던 의복이 아니라 연습의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그 제작과정시 옷감이 부족하였던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유추한다.

출토도포는 홀으로 구성되었으며, 깃은 2겹이고, 2장으로 구성된 칼깃이다. 고름은 겹고름과 안고름이 모두 홀으로 구성된 1장구성이며, 구성법은 앞의 창의고름과 동일하다. 겹고름의 긴고름은 64cm, 짧은고름은 54cm이며 고름나비는 4.5cm이다. 또 속고름은 긴고름이 45cm이고 짧은고름이 30cm이다. 섯은 2장으로 구성된 겹섯과 1장으로 구성된 안섯으로 이루어졌다. 겹섯의 올방향은 중심과 일치하여,

안섵의 올방향은 섵선과 일치한다. 바대는 어깨와 겨드랑이에 구성되었다. 어깨바대는 35cm×27.5cm 크기의 사각형이며, 겨드랑이바대는 14cm×9.6cm 크기의 1·1형이다. 안단은 뒤자락과 뒤트임 및 앞여밈과 밀도런 그리고 수구에 약7cm나비로 구성되었다. 그 중 밀도런(결섵·안섵포함)의 아랫단은 길이를 연장하여 굵로 구성된 제물단이었다. 양옆겨드랑이의 사다리꼴무에 한쪽이 연결되어 뒤자락안에서 등바대와 연결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전박장군묘 출토 도포와 유사하였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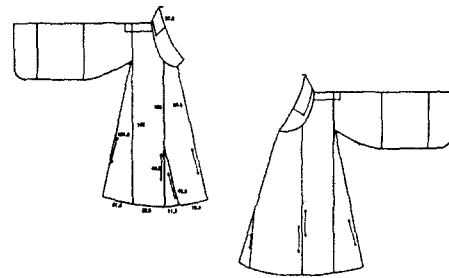
[그림-2] 백색무명출도포(II-1)



[사진-2] 백색무명출도포(II-1)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결섵의 올방향은 중심과 일치하며, 안섵의 올방향은 섵선과 일치한다. 바대는 2겹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감과 안감사이에 55cm×12cm 크기로 구성되었다. 트임은 겨드랑이에 옆트임이 82cm 크기로 구성되었다. 또한 트임이 있는 옆트임과 수구에 매듭장식으로 트임이 뜯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었다. 옆트임에 매듭장식을 한 예는 김위출토의 백색무명누비창의와 진주하씨 출토창의에서도 볼 수 있다²²⁾. 재질은 무명이며 밀도는 결감은 55올×55올/inch, 안감은 44올×47올/inch로 하여 안팎의 재질을 달리 사용하였다. 출토창의의 깃·소매·트임은 기존 출토창의와 유사하나 겨드랑이에 다른 창의와는 달리 정삼각형무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겨드랑이에 정삼각형무가 구성된 예는 김위묘의 갈색견유창의와 구례손씨묘 소색명주누비창의·전박장군묘 청색무명견창의에서도 볼 수 있었다.

봉제는 깃·앞중심좌우여밈·밀도런·수구의 의복 외각선을 따라 명주실로 약8뿔/1cm의 반박음질로 처리하여 안팎을 고정시켰다. 또 소매배래에서 솔기(시점)를 시침으로 연결하여 소매의 안팎을 고정시켰다. 동정은 3뿔상침으로 고정되었다. 본 출토



[그림-3] 백색무명견창의(II-2)



[사진-3] 백색무명견창의(II-2)

③ 백색무명견창의(II-2)

백색무명견창의는 임계백묘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창의는 2겹으로 구성되었다. 깃은 2겹이며 2장으로 구성된 칼깃이다. 깃의 완성선안쪽 0.1cm 부위에 8뿔/1cm 크기 반박음질로 상침되었다. 동정은 0.5cm 크기의 3뿔상침이 2cm 간격으로 처리되었다. 고름은 홀이며 긴고름은 59cm이고, 짧은고름은 50cm이며 속고름은 모두 34cm이다. 섵는 결섵과 안섵 모두 2

창의의 구성가운데 겨드랑이에 정삼각형무(정사각형무를 대각선으로 접은)가 구성된 점, 의복 외각선을 상침고정한 점, 소매가 3폭반으로 구성된 점은 전박장군묘 청색무명겹창의와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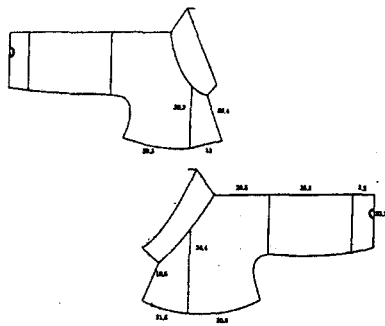
(2) 저고리류

출토저고리류는 백색무명반목판깃저고리·백색무명칼깃저고리(3)·소색명주목판깃저고리(1)의 5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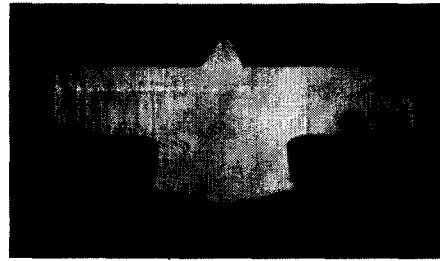
① 백색무명반목판깃저고리(I-2)

백색무명반목판깃저고리는 임계백묘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저고리는 2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깃은 2점이며 2장으로 구성된 반목판깃이다. 재질은 무명이며 걸감밀도는 50올×42올/inch이고, 안감밀도는 52올×42올/inch이다. 본 저고리는 앞·뒤중심과 좌·우겨드랑이 4곳에 밀도런위 5cm지점에서 약18-20cm 크기의 트임(slash)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매의 진동선과 소매와 끝동연결선에도 솔기가 트여진 트임(slash)이 있다. 따라서 트임의 위치가 유사한 점과 안감과 걸감이 모두 트여져있는 점은 트임이 의도적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염습의 풍속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예라 생각하며 그 의미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생각한다.

저고리 배래와 옆선에서 걸감과 안감이 따로 봉제되었으며 배래시접은 안·걸감 모두 뒤쪽으로 처리되었다. 수구는 안팎을 1장으로 구성되었고, 봉제는 깃의 외각선·앞좌우여밈·밀도런에서 완성선 안쪽 0.2cm지점에 5-6땀/cm로 반박음질로 상침처리되었다. 실은 무명실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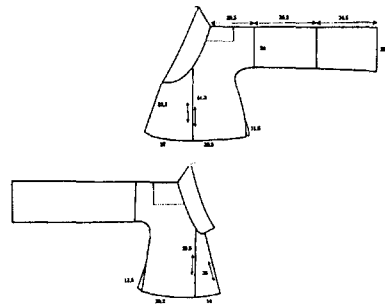
[그림-4] 백색무명반목판깃저고리(I-2)



[사진-4] 백색무명반목판깃저고리(I-2)

② 백색무명칼깃저고리①(II-3)

백색무명칼깃저고리는 임계백묘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저고리는 홀로 구성되었으며, 깃은 2점이나 1장으로 구성된 칼깃이다. 임계백의 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저고리가 1점(II-4) 더 출토되었으며, 또 다른 출토지인 예안이씨²³⁾와 전박장군묘²⁴⁾에서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소매의 끝부분이 본 출토저고리와 전박장군묘 출토저고리는 길(胴)보다 높은 무명이 사용된 반면, 일선 문씨의 경우는 무명저고리에 명주소매이었다. 이는 이 유형의 저고리가 한삼 즉 속저고리로서 걸저고리의 소매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고급재질을 사용하여 달리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재질은 무명이며 밀도는 42올×40올/inch이다. 소매는 직선소매이며 옆선 밀도런에 약 11cm크기 트임(slit)²⁵⁾이 있다. 고름은 달려있지 않다. 바대는 어깨에 47cm×18(앞+뒤)cm크기로 구성되었다. 쇠는 걸쇠와 안쇠 모두 1장구성이며, 걸쇠의 올방향은 중심과 일치하고 안쇠의 올방향은 옆선과 일치한다. 안단은 앞좌우여밈과 옆트임에 선단이, 밀도런에 아랫단이 약 1.4(5)cm나비로 제물단으로 처리되었다. 봉제에 있어서 소매배래는 통솔



[그림-5] 백색무명칼깃저고리(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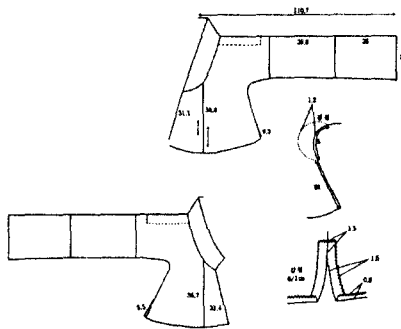
로 구성되었고, 겨드랑이 옆솔기는 완성선에서 앞 뒤의 길이를 접어 4점을 함께 반박음질하고 시접을 잘라내어 솔기를 처리되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소매를 먼저 완성하고 겨드랑이봉제를 하였던 것으로 본다. 즉 진동선을 중심으로 봉제를 달리하였던 것으로 유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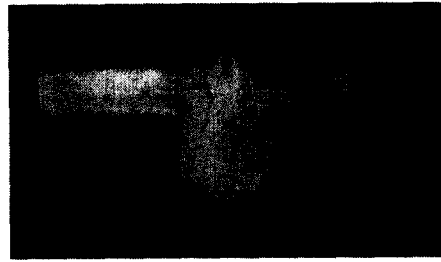
[사진-5] 백색무명칼깃저고리(II-3)

③ 백색무명칼깃저고리②(II-4)

백색무명칼깃저고리는 입계백묘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저고리는 홉으로 구성되었으며, 깃은 2겹이나 1장으로 구성된 칼깃이다. 재질은 무명이며 밀도는 45올×50올/inch이다. 소매는 직선소매이고 트임은 겨드랑이에 9.3cm크기로 있다. 고름은 홉이며 크기는 2.5cm나비에 약27cm길이이며, 한쪽은 감침질로 처리하고, 한쪽은 식서를 사용하였다. 바대는 어깨에 사각형으로 크기는 63cm×13(앞4.5+뒤8.7)cm이다. 겨드랑이에 반월형으로 5cm×1.2cm크기이다. 안단은 앞좌우여밈과 트임에는 선단이 그리고 밀도면에는 아랫단이 1.5cm나비의 제물단이나 걸쇠의 안단은 덧단으로 처리되었다. 배래의 봉제구성은 앞의(II-3)과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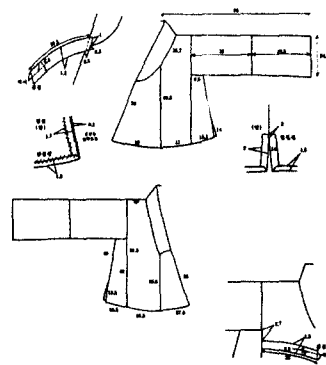
[그림-6] 백색무명칼깃저고리(II-4)



[사진-6] 백색무명칼깃저고리(II-4)

④ 백색무명칼깃저고리③(II-5)

본 출토저고리는 홉으로 구성되었으며, 깃은 2겹이나 1장으로 구성된 칼깃이다. 재질은 무명이며, 밀도는 39올×35올/inch이다. 바대는 어깨에 대어져 있으며, 형태는 사각형이고, 크기는 36cm×12cm이다. 트임은 겨드랑이에 옆트임이 14cm크기로 있다. 앞중심좌우여밈과 트임의 안쪽에 선단이, 밀도면에는 아랫단이 1.5cm크기 제물단으로 처리되었으나 걸쇠의 선단은 덧단으로 처리되었다. 고름은 1장 구성이며, 2.5cm나비에 긴고름은 26.5cm이고, 짧은고름은 24cm이다. 무는 다른 칼깃저고리와는 달리 겨드랑이에 사다리꼴무가 구성되었다. 뒤중심선은 0.2cm로 집어서 반박음질로 처리되었다. 이와 같이 인위적인 뒤중심선을 구성한 예는 전박장군묘 백색무명적삼과 운문단 옆트임저고리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저고리의 좌우를 직물1폭으로 구성한 결과라 보며 상의(上衣)구성에서 뒤중심선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본다²⁶⁾. 특히 본 저고리는 전박장군 출토 백색무명적삼²⁷⁾의 구성과 크기의 측면에서 동일하였다. 즉 사다리꼴무 구성에 의한 형태와 트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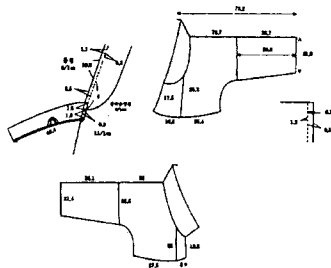


[그림-7] 백색무명칼깃저고리(II-5)

리고 뒤중심선을 집어박은 구성과 저고리 품의 크기가 다른 의복보다 작게 구성된 점은 이 의복이 아동복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게 한다.²⁸⁾ 봉제구성은 앞의 (II-3)과 동일하다.

⑤ 소색명주칼깃저고리④ (II-6)

본 출토저고리는 2겹으로 구성되었으며, 깃은 2겹이며 2장으로 구성된 칼깃이다. 안깃머리는 백색무명솜장의(I-1)의 경우와 같이 반박음질로 상침처리되었으며, 안감쪽은 감침질로 처리되었을뿐 아니라 시접 0.5cm안쪽에 1cm크기의 홈질로 1cm간격으로 상침되었다. 고름은 2겹이며 1장구성으로, 아래쪽이 굵로 구성되었다. 고름의 나비는 3cm이며 긴 고름은 40cm이고, 짧은 고름은 30cm이다. 재질은 명주이며, 밀도는 걸감 85올×90올/inch, 안감 72올×84올/inch이었다. 섹은 동시기의 유물 대부분의 섹선이 앞중심선과 일치하는 것과는 달리 걸선의 섹선이 중심에서 왼손쪽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안섹의 섹선술기는 섹쪽을 향하며 걸감에서 술기를 상침으로 고정시켰다. 봉제에서 깃과 수구는 완성선 0.5cm안쪽에 상침처리되었다. 깃의 경우는 깃머리에서 4cm까지는 9뿔/1cm으로 반박음질로 처리되었으며, 이후는 8뿔/1cm의 홈질로 처리되었다. 또 수구



[그림-8] 소색명주칼깃저고리(II-6)



[사진-7] 소색명주칼깃저고리(II-6)

의 경우는 좌우가 불규칙하여 왼손쪽은 0.7cm크기의 뿔이 1.5cm간격으로 홈질처리되었다. 이렇게 좌우가 일정치 않은 것은 수거 중 일부 봉제가 파손된 것인지 알 수 없다.

(3) 하의류

출토하의류는 백색무명솜바지·소색무명홀바지·소색무명겹바지·소색무명누비바지·백색무명솜치마·갈색문양단겹치마·소색무명단속곳 등 7점이 있다.

① 백색무명솜바지(I-3)

본 출토바지는 솜구성이며, 허리·마루폭·큰사폭·작은사폭으로 구성되었으며, 마루폭의 옆선이 굵로 구성되었다. 큰사폭과 작은사폭의 연결선과 마루폭과 연결각도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다.²⁹⁾ 이러한 구성의 바지를 김명숙은 사폭바지라 칭하였으며, 또 그 예로 동시기의 전주이씨묘에서나 17세기 후기인 홍우협과 홍진종의 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바지구성이 17세기후기까지 지속됨을 의미한다. 재질은 무명이며, 걸감 42올×38올/inch, 안감 32올×24올/inch이다. 솜의 두께는 구성부위에 따라 다르다.([표-2]참조) 허리와 부리에 완성선1cm안쪽에 1~2mm크기뿔이 1cm간격으로 홈질로 상침처리되었다.



[사진-8] 백색무명솜바지(I-3)

② 백색무명누비바지① (II-8)

본 출토바지는 누비구성이며, 형태는 (II-9·II-10)과 동일하다. 재질은 무명으로, 걸감은 63올×54올/inch이고, 안감은 43올×36올/inch이다. 솜누비바지로 누비간격은 약 1.1cm이고, 누비의 뿔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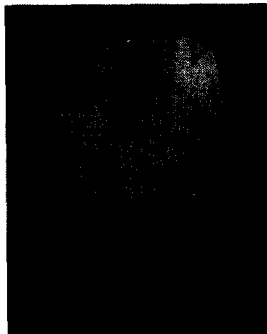
6뿔/1cm이다. 안단은 바지 부리안쪽에 약 1.1cm크기의 별단이 감침질로 처리되었다. 각 구성부위의 시접은 연결부위의 누비사이로 끼워넣어 봉제함에 따라 앞판에서 시접이 나타나지 않게 처리되었다.



[사진-9] 백색무명누비바지(II-8)

③ 소색무명홀바지 ②(II-9)

본 출토바지는 홀으로 구성되었으며, 허리·큰사폭·작은사폭·마루폭으로 구성되었다. 재질은 무명이며, 42올×36올/inch이다. 앞·뒤의 사폭연결선이 동일 방향에 위치하지 않고 엇갈려 위치하였다. 바지부리는 0.6cm크기로 접어 감침질되어 있으며, 푸서와 식서의 연결봉제는 식서의 시접이 0.2cm 크기로 푸서를 감싸 반박음질로 처리되었다.



[사진-10]
소색무명홀바지(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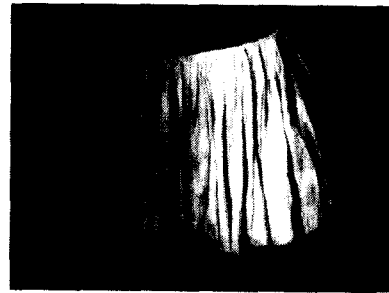
④ 백색무명겹바지 ③(II-10)

본 출토바지는 2겹으로 구성되었다. 재질은 무명이며, 밀도는 52올×53올/inch이다. 허리·큰사폭·작은사폭·마루폭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의 (II-9)와

같이 사폭연결선이 앞과 뒤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바지의 마루폭은 2폭으로 연결 구성되었다. 바지 배래의 시접은 안감과 겉감이 시침으로 고정되었다. 허리와 부리는 반박음질로 처리되었다. 허리는 1mm 안쪽에 5뿔/1cm크기로 홈질처리되었으며, 부리는 1mm 안쪽에 8뿔/1cm의 반박음질로 상침처리되었다.

⑤ 백색무명숨치마(I-5)

본 출토치마는 임경백묘에서 출토되었으며, 유형은 숨으로 구성되었다. 허리·허리끈·치마로 구성되었다. 허리부위에 파손이 심하여 보수작업을 요한다. 재질은 무명이며, 겉감과 안감 모두 40올×30올/inch이다. 35cm폭 직물 11폭으로 구성되었다. 치마의 구성부위 가운데 치마·허리·허리끈에 따라 두께를 달리하였다.([표-2] 참조) 치마의 양옆과 밑도련에 완성선에서 약 5-6cm안쪽에 1.5cm크기의 3뿔상침으로 처리되었다.



[사진-11] 백색무명숨치마(I-5)

⑥ 갈색문양단겹치마(II-7)

본 유의는 2겹구성이며, 허리·허리끈·치마로 구성되었다. 재질은 갈색 문양단이 사용되었다. 치마의 밑단에서 가로로 접은 횡단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치마 하부에 횡단을 접은 치마는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예안 이씨의 의례용치마³⁰⁾(8cm)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그 추정연대도 17세기 전기인 점은 그 수는 적지만 당시의 일부에서 착용하였던 유형이라 유추할 수 있다.

⑦ 어깨끈 달린 백색무명단속곳(I-4)

출토단속곳은 홀이며, 어깨끈·허리·허리끈·바지·무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요소가운데 어깨끈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속곳이 출토된 정응두·벽진이씨·홍계강·김함·김흠조 등의 조선

전기의 유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³¹⁾ 전주이씨·순천김씨·구례손씨 등 조선중기유물가운데에서 볼 수 있다³²⁾. 이 역시 당시부터 비롯된 형태구성이라 볼 수 있다. 재질은 무명이며, 기존의 출토 단속곳과 유사하나, 좌우바지통의 크기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즉 옆트임이 있는 바지폭은 3폭으로, 다른 바지폭은 4폭으로 구성되었다. 주름은 앞뒤와 옆중심은 맞주름이며, 그 외는 외주름으로 이루어졌다. 주름크기는 4~5cm이다. 어깨끈·허리·허리끈·바지·무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요소 가운데 어깨끈은 2겹이며 1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비는 5cm이며, 길이는 50.5cm이다. 허리는 2겹이며 1장으로 구성되었다. 허리끈은 3cm나비이며, 긴허리끈은 87cm이고 짧은 허리끈은 54.5cm로 차이가 있다. 무는 마름모형무가 밑바대로 구성되었다.

(4) 기 타

① 소색무명숨버선(Ⅱ-11)

출토버선은 숨구성이며, 안팎재질의 밀도가 다르며, 그 두께는 2.59mm이었다.

② 백색무명이불(Ⅱ-12)

출토이불은 홀이며, 6폭으로 구성되었다. 크기는 가로 188cm, 세로222.8cm이며, 재질의 밀도는 39울×37울/inch의 거친 무명이 사용되었다. 전박장군출토 이불과 그 구성이 동일하였다.

2. 구성요소별 성격

출토복식을 크기와 재질 그리고 색상의 형태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2]와 같다.

① 깃

조사 의복에 나타난 깃의 종류는 목판깃·반목판깃·칼깃의 3종류이며, 포류에서는 목판깃(1)과 칼깃(2)이, 저고리 5점에는 칼깃(4)과 반목판깃(1)이 나타났다. 이외에 파손의복 가운데에서 목판깃이 있었다.

출토의복에 나타난 깃구성과 봉제를 살펴보면 깃은 2겹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은 2장구성과 1장구성³³⁾이 공존하였다. 그 가운데 포류의 깃은 모두 2장인 반면 저고리류는 2장구성과 1장구성이 모두 나타

나고 그 중 재질이나 형태에서 속옷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저고리는(Ⅰ-2)와(Ⅱ-6)은 2장깃이었다. 이는 겉옷의 깃일수록 2장구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깃을 2장으로 구성함으로써 깃이 봉제선에 의해서 힘을 받아 깃선의 형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36]참조)

깃의 크기에 있어서 포류는 약 96cm이며, 저고리류는 85cm이며, 나비는 포류가 12-10cm인 반면 저고리류는 11-8.5cm인 것으로 포류의 깃이 저고리류의 깃보다 길이와 나비에서 크게 구성되었다. 이는 각 구성요소의 크기를 의복전체에 비례한 당시 구성의 일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깃의 봉제에 있어서 겉깃과 안깃사이에 안단을 대었으며, 이 안단에 안깃을 감침질로 곱게 연결하였다. 이는 겉감에는 감침질감이 나타나지 않아 미적인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봉제상으로도 견고하여 마치 심지를 댄 효과로 구성한 기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깃의 봉제에 있어서 안감의 시접을 상침으로 고정한(Ⅱ-6)경우도 있었다. 즉 17세기의복의 깃은 그 형태구성과 봉제구성이 모두 깃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성을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소매

본 출토의복에 나타난 소매종류는 직선소매·사선소매·곡선소매의 3종류이다. 포류에는 직선소매와 곡선소매가 저고리류에는 직선소매와 사선소매가 각각 나타난다. 화장은 포류에서도 도포·창의·장의 순으로 차이가 나며, 저고리류도(Ⅱ-2·3·4)와(Ⅱ-5·6)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의복에 따라 화장이 다양하였으나, 의복의 유형에 따라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의복의 겉옷 혹은 받침옷 등의 착용용도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하였음이라 생각한다.

③ 섶

출토의복에 나타난 섶은 구성폭수에 따라 2장구성 섶과 1장구성 섶의 2종류가 있다. 포의 경우는 대부분 2장구성 섶인 반면 저고리는 1장구성 섶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섶의 나비가 당시 일반적인 직물의 폭(34cm내외)보다 작은 경우는 1장구성이고, 넓은 경우는 2장구성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직물의 양에 따라 조각을 이용한 경우(Ⅱ-2)도 있다고 본다(Ⅱ-2의 안섶은 폭이 좁아도 2폭

[표-2] 출토 의복의 유형 및 크기

종류 유형	포류			저고리류						종류 유형	하의류						
	I-1	II-1	II-2	I-2	II-3	II-4	II-5	II-6	I-3		II-8	II-9	II-10	I-5	I-7	I-4	
구성 유형	출집		●		●	●	●			구	홀			●		●	
	두겹			●	●				●	구성	두겹			●		●	
	숨	●								유형	숨	●			●		
	숨누비									숨누비		●			치마 2.3		
	두께(mm)	1.37	0.35	0.68	0.86	0.46	0.4	0.5	0.18	두께(mm)			0.47	0.61	허리3.	0.54	
어깨 바태	유		●	●		●	●	●		어	유				허리끈1.2	●	
	무	●			●				●	무	●	●	●	●		●	
깃	목판깃	●								깃	길이					50.5	
	칼깃		●	●		●	●	●	●	나비						5	
	반목판깃				●					유	●	●	●	●	●	●	
	1장					●	●	●		허	무						
	2장	●	●	●	●				●	리	길이	110	106	106	111	82	
	길이	96	96.3	95.8	88.4	95.8	88.7	88.7	85.5	나비	16	16	15.7	17	3	14.5	
	나비	10	12	11.8	11	11.2	10	8.5	10.7	유					●	●	
	고대	17	20	18	17.5	19.5	17.5	17.5	15.6	허	무	●	●	●			
동정	유		●							깃	길이				69	87	
	무	●	●		●	●	●	●	●	나비					2	3	
	길이			58.5						치마폭수					11	7	
	나비			9						부리(바지뚫수)						4	
소매	직선	●			●	●	●			총길이	107	108.5	108	108	82		
	사선				●				●								
	곡선		●	●													
	화장	92.5	121.8	109		105.5	110.7	88	73.2								
	나비	30		41		24	24	24.5									
	수구	29	20	21	23.5	24	24	24	21.4								
	진동	31	32.5		26.5	24	24	24.3	27								
	크기	52.2	47.2	47.3	21.6	27	20.9	29	16.8								
설패	2	●	●	●													
	1				●	●	●	●	●								
	크기	42.8	28.3	31.3	13	14.2	13.7	27.8	5.9								
	2	●		●													
고름	1		●		●	●	●	●	●								
	좌	27×41.5	66×25	59×2.5			27.3×1.5(2.5)	26.5×1.5(2.5)	40.4×3								
	우	21×33	53.5×2.5	50×2.5			23.5×1.5(2.5)	24×1.5(2.5)	30×3								
	속		30×2														
트임	우		44.5×2	34×1.4					34×1.4								
	유		●	●		●	●	●									
	무	●			●				●								
위치	뒤				●	●	●	●									
	크기		109	82		11.6	9.3	1.4									

으로 구성).([표-1]참조) 또 설패의 올방향은 겹설패는 중심선, 안설패는 안설패선과 일치하였다. (I-1·II-2·II-3·II-4·II-5) 이는 2장설패의 연결 및 누비에 있어서도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설패선이 사선임에 따라 올방향으로 구성하여 옆선이 처짐(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겹설패

의 경우는 이러한 기능성보다는 미를 중시하여 중심과 일치시켜 길과 하나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고름

고름은 2겹과 홀으로 구성된 2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무명의 포류와 저고리는 구성유형에 관계없이 홀으로 구성된 고름인 반면 경주저고리는 2겹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홀로 구성된 고름은 한쪽은 푸서로 다른 한쪽은 식서를 이용하였다. 이때 식서는 푸서를 감싸 감침질로 처리되었다. 또한 긴고름은 짧은 고름보다 약 10여cm가 길게 구성되었다. 이는 앞시기의 동일길이였던 것에 비하여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그 차이가 10cm인 점은 고름의 고가 작기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고름은 여전히 두 고름 길이의 차가 없다.

⑤ 재질

본 출토의복의 재질은 종류와 밀도 그리고 두께는 [표-3]과 같다.

물결감의 밀도는 무명의 경우 40-60올×40-55올/inch이며, 명주는 85올×90올/inch 이었다. 안감의 밀도는 [표-3]과 같이 겹감보다 (10올×10올/inch) 약1새정도 거칠게 구성되었다. 의복의 재료사용에 있어서 겹감과 안감의 용도에 따라 옷감의 질을 달리 사용하는 경제성을 엿볼 수 있다.

IV. 17세기 봉제구성의 특징

출토의복에서는 흙질·반박음질·박음질·3땀삼침·쌈솔·굽솔·감침질 등 다양한 바느질방법이

[표-3] 출토의복의 재질과 밀도

성격	종류	포류			저고리류						하의류						기타	
		I-1	II-1	II-2	I-2	II-3	II-4	II-5	II-6	I-3바	I-4	I-5	II-7	II-8	II-9	II-10		II-11
재질	종류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명주	무명	무명	무명	문양단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밀	겹감	43×49	53×53	55×55	50×42	42×40	45×50	39×35	85×90	42×38	45×35	40×30		63×54	46×36	52×53	56×53
	도	안감	40×33		44×47	?				72×84	32×24		40×30		43×36		45×46	40×44
	두께		1.37	0.35	0.68	0.86	0.455	0.4	0.5	0.18	7.6	0.54	2.3			0.47	0.7	2.59

출토의복의 재질은 무명과 명주 그리고 문양단이 사용되었으며, 그 가운데 대부분이 무명이었다. 직

타났다. 이는 다른 출토지에서도 유사하였다(김동욱·박성실·이은주).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

[표-4] 솜으로 구성된 의복의 봉제구성

봉제	종류	I-1		I-4				I-3				II-8				
		종류	부리	종류	부리	종류	부리	종류	부리	종류	부리	종류	부리			
깃	종류	박음질	●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흙질		흙질	●	흙질	●	흙질		흙질		흙질	●	흙질	●	
		3땀		3땀		3땀		3땀	●	3땀	●	3땀		3땀		
		크기	7-8땀/1cm	크기		0.1cm		크기(3땀)	1.5cm	크기		0.4		크기		0.1
		간격		간격		1cm		간격	8.5cm	간격		0.1		간격		0.5안
상침	종류	크기		크기		0.9cm 안쪽		크기				크기				
		위치	나비1mm 안쪽	위치				위치	5-6cm 안쪽			위치				
		크기		크기		0.1cm	1.5cm	크기				크기				
		간격		간격		1cm	6cm	간격				간격				
		위치		위치		0.9cm 안쪽	5cm 안쪽	위치				위치				
		땀의크기		땀의크기				땀의크기	0.1cm				땀의크기			
앞좌우여밈	봉제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흙질		흙질	●	흙질	●	흙질		흙질		흙질		흙질		
		3땀	●	3땀		3땀	●	3땀		3땀		3땀		3땀		
		크기	1.2cm	크기		0.1cm	1.5cm	크기				크기				
		간격	5.5cm	간격		1cm	6cm	간격				간격				
밑도련	봉제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반박음질		
		흙질		흙질	●	흙질	●	흙질		흙질		흙질		흙질		
		3땀	●	3땀		3땀		3땀		3땀		3땀		3땀		
		크기	1.2cm	크기		0.1cm		크기				크기				
		간격	5.5cm	간격		1cm		간격				간격				
위치	5cm 안쪽	위치		0.9cm 안쪽	5cm 안쪽	위치				위치						

한 바느질방법이 의복의 홉·두겹·숨으로 구성된 유형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 의복구성 유형과 봉제방법을 연관시켜 알아보고자 한다.

1. 숨으로 구성된 의복의 봉제구성

출토의복 가운데 숨으로 구성된 의복은 백색무명장의(I-1)·백색무명바지(I-4)·백색무명숨치마(I-5)와 무명숨버선이 있으며, 의복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난 봉제방법은 의복의 트임부위의 고정하기 위한 상침과 의복의 구성부위에 따라 숨의 두께를 달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① 숨을 고정하기 위한 3땀상침

숨으로 구성된 의복은 구성부위에 따라 숨을 고정시키기 위한 상침이 처리되었다. 상침의 부위는 깃과 앞좌우중심과 밑도련 그리고 수구(부리)부위 안쪽5-6cm지점이었다. 즉 이러한 상침은 안감이 걸감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봉제구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상침의 크기와 간격은 의복에 따라 달리 구성되었다. 즉 포와 치마는 넓게, 바지와 저고리는 좁게 처리되었다. 이렇게 안감과 걸감이 연결된 상침은 3땀상침이며, 상침의 크기는 1.2-1.5cm이고 상침의 간격은 5.5-8cm로 의복역할인 포류이나 혹은 저고리류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상침은 걸감에는 2땀이 나타나고 안감에 3땀이 나타나게 처리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3땀과 3땀사이는 걸감과 안감사이에서 띠주어 안팎에서는 3땀만이 보였다. 이러한 숨으로 구성된 봉제는 다른 전방장군묘 출토 백색무명겹유저고리와 소색무명주저고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⁴⁾.

② 구성부위에 따라 숨의 두께를 달리 구성

출토의복 가운데 포나 저고리와 같이 동일하게 신체를 감싸는 부위는 구성부위마다 숨두께를 유사하게 한 반면 착용시 겹침 부위가 있는 치마와 바지의 경우 허리부위는 숨을 얇게 구성하였다.³⁵⁾ 이는 정응두와 흥계강의 내촌의에서도 볼 수 있다.

2. 2겹으로 구성된 의복의 봉제구성

조사의복 가운데 2겹으로 구성된 의복은 백색무

명겉창의(II-2)·소색명주칼깃겉저고리(II-6)·백색무명겹바지(II-10)·화문단겉치마(II-7)·백색무명반목판깃겉저고리(I-2)이다.

이렇게 2겹으로 구성된 의복은 의복종류에 관계없이 의복을 고정하기 위한 봉제법이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2겹으로 구성된 의복의 봉제구성

봉제		종류	I-2	II-2	II-6	II-10	II-7	
상침	깃	박음질					허리	
		반박음질		●	●			
		홈질	●		●		●	
		3땀						
		크기 땀/cm	5-6	6-7	8-9		5	
		간격						
	앞좌우여밈	크기 땀/cm	0.2cm안	0.1cm안	0.1cm		0.2cm	
		위치						
		봉제	박음질				無	부리
			반박음질		●			
			홈질	●				●
		3땀						
크기 (땀/1cm)	5-6땀	6-7			8			
간격								
위치	0.2cm안	0.1cm			0.1cm			
밑도련	봉제	박음질				無		
		반박음질						
		홈질	●					
	3땀							
	크기	5-6땀/1cm	6-7					
	간격							
위치	0.2cm안쪽	0.1						
트임	봉제	박음질				無		
		반박음질		●				
		홈질						
	3땀							
크기								
간격								
위치								
배래	분리	●		●				
	연결		●		●			

① 고정을 위한 반박음질(홈질)상침처리

두겹으로 구성된 의복도 앞의 숨으로 구성된 의복과 같이 깃과 앞좌우중심 그리고 밑도련과 부리(수구)에 완성선에서 0.1-0.2cm 안쪽에 5-8땀/1cm의 반박음질 혹은 홈질로 상침처리되었다. 대개의 경우는 홈질로 처리된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본 출토유예에

서는 반박음질로 처리되었다³⁶⁾. 상침위치는 의복종류에 관계없이 의복완성선(외각선) 안쪽 0.1~0.2cm로 공통적인 반면 상침크기는 1cm에 5-8땀으로 의복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의복별보다는 바느질하는 사람에 따른 차이로 생각한다.

② 배래의 안팎(겉감과 안감)의 시접 고정

두겹으로 구성된 의복가운데 앞의 백색무명겹창의(II-2)와 백색무명겹바지(II-10)에서 배래의 안감과 겉감의 시접을 홉질로 연결 고정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착용시 두겹으로 구성된 의복의 시접이 따로 걸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성을 고려한 것이라 추정하며, 이는 한국고유봉제인 4겹박기의 필요성과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3. 홉으로 구성된 의복

본 조사의복가운데 홉으로 구성된 의복은 백색무명도포(II-1)와 백색무명저고리3점(II-3·4·5) 그리고 백색무명홉바지(II-9) 등이 있다. 이렇게 홉으로 구성된 의복의 안단처리와 배래봉제법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표-6]과 같다.

① 트임이나 도련의 안단(선단과 아랫단) 처리

홉으로 구성된 의복은 앞의 솜으로 구성된 의복이나 2겹으로 구성된 의복과는 달리 의복의 앞좌우여밈과 밑도련 그리고 수구와 트임 부위에 안단이 처리되었다. 안단의 크기는 포류의 경우는 5-6cm나

비이며, 저고리와 바지는 1.5-2cm나비로 의복에 따라 달리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겉선의 선단은 따로 덧단을 댄 반면 밑도련과 안섷도련 그리고 도포의 경우 뒤트임의 자락의 안단은 겉감을 굵로 꺾은 제물단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봉제구성은 정응두·이언웅·벽진이씨·홍계강의 단령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선초기부터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³⁷⁾ 또한 안단의 구성이 이후시기의 것처럼 다른 친으로 구성된 덧단이 아닌 제물단인 것은 아직은 그 발전단계임을 시사한다.

② 시접의 솔기크기는 0.2cm이며, 바느질은 박음질과 반박음질

홉으로 구성된 의복에 나타난 바느질은 박음질과 반박음질이었으며, 그 시접크기는 약 0.2cm이었다. 두겹으로 구성된 의복의 시접이 식서인 경우 시접이 약 1cm인 것과는 구별된다. 또 그 바느질 역시 홉질이 아닌 반박음질 혹은 박음질을 사용하여 의복구성에 따라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시접이 식서이며, 시접이 푸서인 경우는 통솔 혹은 식서와 푸서의 연결은 시접을 감싸 감침질로 푸서를 감싸 처리하였다. 이러한 봉제구성은 조선초기부터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③ 배래는 곱솔 혹은 통솔 처리

저고리와 바지의 배래부위는 완성선을 중심으로 앞뒤 길의 시접을 완성선에서 꺾어 4겹을 1번에 반박음질로 박아 시접의 솔기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표-6] 홉으로 구성된 의복의 봉제구성

종류	II-1					II-3					II-4					II-5					II-9									
	겉	앞여밈	밑도련	트임	수구	가드랑이바대	어깨바대	배래	겉	앞여밈	밑도련	트임	수구	가드랑이바대	어깨바대	배래	겉	앞여밈	밑도련	트임	수구	가드랑이바대	어깨바대	배래	허리	부리	마푸복선	배래		
안단	나비	2	6	6	6	6			1.4	1.4	1.4	1.4				2	1.5	1.5	1.5	0.8			0.7	1.5	1.5	1.5	1.2			
	유형	1						無	●	●	●	●					●			●			●	●						
	2장(별단)	●	●	●	●				●							●				●			●	●						
	박음질																													
	반박음질	●															●											●	●	
봉제	홉질																													
	감침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솔															●														
	가름솔																													
곱솔							●								●									●				●		
크기 (cm)							0.2								0.4										0.2	0.6	0.6			

처리하였다. 이외 두겹으로 구성되거나 홑으로 구성된 상의류에는 모두 어깨바대가 대어져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중기 출토의복에 나타난 바느질 방법은 의복의 구성유형에 따라 의복종류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의복의 바느질법은 구성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기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V. 결 언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충북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과정 중 이장현 무덤에서 발굴된 출토복식에 나타난 다양한 봉제법을 의복의 구성유형과 연관시켜 조선중기의 봉제구성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본 출토의복은 17세기 전기의 것으로 예안이씨 · 구례손씨 · 전박장군 · 전주이씨묘와 동시기이다. 이러한 동시기 출토지와 의복종류와 의복의 구성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의복은 지역보다는 시기에 따라 착용된 의복의 종류나 구성에 의복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특히 본 출토의복은 시대추정이 애매하였던 전박장군묘 출토의복 가운데 여러 의복이 형태와 구성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출토지에서 발굴된 사복바지는 전박장군묘에서 발굴되지 않은 점과 이 바지가 동시기인 전주이씨와 17세기후기인 홍우협 · 홍진중에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전박장군묘의 추정연대는 적어도 본 출토지와 유사하면서 앞선 것으로 유추된다.

본 출토의복에서는 상침 · 흠질 · 박음질 · 반박음질 · 싹술 · 통술 · 굽술 등의 다양한 바느질법이 나타난다. 즉 홑으로 구성된 의복은 흠질 · 싹술 · 통술 · 굽술의 바느질법을, 2겹으로 구성된 의복은 흠질 · 반박음질과 박음질의 상침을, 솜으로 구성된 의복에서는 흠질과 3땀상침바느질법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안팎배래 시점의 흠질 연결도 볼 수 있다.

특히 의복의 구성부위가운데에서 깃 · 앞중심여밈 · 밀도련 · 수구(부리) · 트임의 봉제법은 의복의 구성유형에 따라 달리하였다. 즉 솜구성의 경우는 3땀상침으로, 두겹으로 구성된 의복은 각 부위의 완성선의 반박음질이나 흠질상침으로, 홑으로 구성된

의복은 선단과 아랫단으로 처리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중기 다양한 봉제구성(바느질법)은 의복의 구성유형에 따라 달리 한 결과이었다. 이는 의복의 형태유지와 푸서처리를 위한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복 구성에 있어서 형태는 복식미를 표현하는 기준으로서 중시하였던 당시의 복식관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봉제구성은 조선초기부터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통봉제법가운데 깃봉제법과 4겹봉제법의 초기단계로 발전되는 시기로서 그 봉제법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고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尙房定例 · 閩閣叢書가 있으나 구체적인 의복구성이나 제작법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재인용, 金淑堂著 朝鮮裁縫全書(1925), 이소담저 裁縫教本(1948)이 있다.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孫貞圭著 朝鮮裁縫參考書, 경성 活文社 大正14년(1925) 金粉玉, 韓服構成學, 修學社, 1983. 朴京子 · 林純暎, 韓國衣裳構成, 修學社, 1983. 朴永楸, 傳統韓服構成, 新陽社, 1984. 조효순, 생활한복, 명지대학교 출판부, 1985. 이주원, 한복구성학, 경춘사, 1987. 백영자, 한국의 봉제, 교학연구사, 1998.
- 2)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家政學科 博士學位論文, 1992.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3) 慶伯 字會而 宣祖甲午生一五九四 孝宗丙申十月二十七日卒(六十三歲卒) 宣祖教郎 墓淸原郡梧倉面九龍里乾之山山六四番地 子坐 配密陽孫氏直長懿德女 一五九二年生一六六十年八月三日卒(六九歲卒) 墓淸原郡梧倉面九龍里乾之山山六四 番地子坐 配 陽川許氏 謹軍繪女 忌八月三日墓附
- 4) 이은주, 안동지역전통복식, 안동대학교 박물관 도록, 1996.
- 5) 유희경 · 김미자, 진주하씨 출토분헌과 복식조사보고서, 건들바우 박물관, 1991, p.p.92-133.
- 6) 김동욱, 임란전후 출토복식 및 사례,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8책, 1983, p.p.13-191.

- 7) 김동욱·장인우, 任亂 前後 全州李氏墓 出土遺衣.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論考(Ⅱ), 충북대학교 박물관 調査報告 第22冊, 1988, p.p.9-65.
전중이씨는 남편의 생졸연대인 1592-1624년와 유사하였던 17세기 초기의 것으로 추정한다.
- 8) 김명숙, 홍우협 묘 출토17세기복식논고,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37책, 1993. 홍우협은 1655-1691인 17세기 후반추정
- 9) 김동욱·고복남, 중요민속자료 조사보고서 제75호, 문화재관리국, 1979.
- 10) 고복남, 일조각, 한국전통복식사 연구, 1986.
- 11) 孫貞圭, 朝鮮裁縫參考書, 活文社, 昭和十六年.
- 12) 이주원, 한복구성학, 경춘사, 1987.
백영자, 한국의 봉제, 교학연구사, 1998.
- 13) 조효순, 생활한복, 명지대학교 출판부, 1985.
- 14) 金粉玉, 韓服構成學, 修學社, 1983.
- 15) 朴京子·林純暎, 韓國衣裳構成, 修學社, 1983.
- 16) 김영숙편저,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 17) 장인우, (1996) 앞글. 대개의 장의는 청색과 녹색 및 갈색을 띠고 있다.
- 18) 유희경·김미자, (1991) 앞글.
- 19) 장인우, 조선중기 저고리의 복원적 고찰, 출토유물의 및 근대복식논고,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20책, 1987, p.p.69-143
박성실, (1992), 앞글. 정응두 출토저고리, p.177-178.
유희경·김미자, (1991) 앞글.
- 20) 김동욱, (1983), p.69 도포의 용어는 세종실록때 처음 나타나며, 실물은 전 박장군출토 도포를 최초의 도포로 삼고 있다.
이은주, 도포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약의 도포를 결설의 크기·무의 크기와 뒤트임의 벌어짐 등으로 앞선 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결설의 크기가 김약의 것이 큰 것은 김약의 옷품이 32cm인 반면 전 박장군 출토도포는 품의 나비가 23cm로 좁게 구성되었다. 따라서 설의 나비 역시 전박장군 출토도포의 것이 좁게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뒤트임의 겹침 정도는 옷을 마름질하는데 있어서 옷감을 최대한 사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 21) 장인우, 16·17세기 우리나라 출토복식, 학연문화사, 1995.
- 22) 장인우, (1987) 앞글.
유희경·김미자, (1991) 앞글.
- 23) 안동대학교 박물관 특별전시회, 「450년만의 외출」, 일선 문씨 한삼. 1998.
- 24) 장인우, (1987) 앞글.
- 25) 본 의복의 트임을 서양의복구성의 트임인 slash와 slit으로 구분한다면 slit에 해당되는 트임이다.
- 26) 이와 같이 뒤중심선을 집어박어 구성한 예는 전박장군 갈색목단검당저고리에서도 볼 수 있다.
- 27) 김동욱, (1983) 앞책, 소색무명진저고리
- 28) 장인우, (1987) 앞글.
이은주, 김홍조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본 조선전기의 염습의에 관한 고찰, 판결사 김홍조선생활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영주시, 1998, p.p.292-304.
- 29) 김명숙, (1993), 앞글. 홍우협의 바지와 동일하다.
김동욱·장인우, (1988) 앞글.
- 30) 안동지역전통복식, (1996) 앞글.
- 31) 박성실, (1992), 앞글. 정응두 183·228, 벽진이씨 240-256, 홍계강 336-370, 김합 392-404.
이은주, (1998) 앞글.
- 32) 김동욱·장인우, (1988) 앞글. 어깨끈 달린 속곳4점이 발굴됨
김동욱, (1983) 앞글. 순천김씨·구례손씨에서 발굴되었다.
- 33) 2장구성이란 안팎을 따로 구성하여 깃선을 연결한 것이며, 1장구성은 안팎을 굵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 34) 장인우, (1987) 앞글. p.p.118·119 : 전박장군 출토 백색무명겹유저고리와 소색무명겹유저고리, p.75: 갈색회장저고리, p.78 구례 손씨 : 초정리, 소색명주저고리.
- 35) 박성실, (1992), 앞글. p.183, 정응두 내촌의, 홍계강 337.
- 36) 장인우, (1987) 앞글. p.89, 전박장군 : 소색무명겹저고리.
- 37) 장인우, (1987) 앞글. 전박장군 : 소색무명적삼·백색무명적삼.
박성실, (1992) 앞글. p.161 정응두의 단령, p.232, 벽진이씨 단령, p.261·271, 이언웅, 단령, p.320·321, 홍계강 단령 ...
- 38) 박성실, (1992) 앞글.